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조선 시대 사람들은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요?”, “아마존, 아프리카 밀림, 이슬람 제국”  
질문의 핵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냐? 기회도 주지 않고 지옥에 넣으면 안 된다.”,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 편협한 생각, 불공평”

이런 질문은 정상적인 성인들에게 해당된다. 그런데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다.  
유산된 아이들, 갓난아기, 4-5살 정도 된 아이, 정신박약아,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답변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답을 것이다.

### 하나님의 속성

지난주: 하나님의 존재, 유튜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주적인 관점: 질량, 에너지, 우주의 질서, 법칙

설계적인 관점: 모든 것은 설계자가 있다.

하나님의 크기: 우주보다 커야 한다. 하나님의 지성: 무수한 별들, 세포들 질서 있게 운행  
그래서 이런 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무한한 절대자’라고 한다.

논리적으로 무한한 절대자가 되려면 어떤 속성이 있어야 할까?

“다 옳아야 한다.”(언행, 사고, 판단, 실행), 영어로 ‘right’, ‘righteous’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를 입는 것(롬1:16-17, 고후5:21)

이유: 사람은 옳지 않다(불의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옳다. 그래서 옳지 않은 존재와 동거 불가능

이렇게 모든 것이 옳으면 공정할 수밖에 없다. 공정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과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공정함, 심지어 사탄 마귀들에게도 공정함

부모에게 자식들, 공정함이 없으면 아버지 노릇 못하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창18-19), 18:23-25, 50, 45, 40, 30, 20, 10명, 없다.

### 구원과 관련한 공정함(Justice)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히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기회가 공평히 주어지는가?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신다. 계시(revelation)

요1:9,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하나님의 존재: 이미 설명하였다. 해와 달과 별들, 세포 등 모든 설계

알려주시는 이유: 설계자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한다.

즉 나를 창조한 분, 우리의 주인인 그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그 일이 생기지 않음.

롬1:18-20, 진노와 심판, 변명하지 못한다. 의, 불의 경건치 아니함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주인을 알아보지 못함, 왜 존재하는지 알려하지 않음), 감사하지도 않고(공기, 해, 물 등),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하나님이 없다. 원승이어서 나왔다. 무생명에서 생명, 아메바에서 사람 등),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것을 성경은 ‘어리석다’(foolish)고 한다.

22-23절: 그 결과, 그리스/로마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황하 문명, 조선시대, 아마존, 아프리카, 이슬람, 샤머니즘 등

지금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한다.

무신론자도 사실은 자기를 믿고 숭배하는 것

이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다.

행14:15-17, 루스드라의 이교도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옳고 그름을 안다. 도둑질, 간음, 사기(29-32)  
다 알면서도 고의로 그리하고 있다.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안다.

태어나면서부터 진화론자인 사람은 없다. 다 창조론자, 다만 배워서 고의로 진화론자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18).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빛대로 정죄하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 회개 보고할 수 있는 지성과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의 빛에 맞게 반응해야 한다.

이 반응이 없으면 그에게 주어진 계시의 빛에 따라 정죄받는다.

“교회를 몰라요.” “성경이 없어요.” 모르거나 없는 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

알고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약4:17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다.

율법의 유무(롬2:11-12)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판단하신다. 흑인 백인, 유무식, 재산, 명성, 오바마나 트럼프  
아마존 밀립, 뉴욕 한중심에 사는 문화인, BC와 AD

24-25절: 그 결과, 그들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라고 내주시므로 몸을 욕되게 하는 일 발생  
창조물 섬김, 아마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고대, 중세, 현대 상관없다.

26-27절: 그런 결과의 대표 사례, 동성애, 온 세상이 동성애로 가득함은 하나님 멸시  
알면서도 멸시하는 일, 동성애의 창궐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

28절: 지식 속에 두기를 거절하므로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 즉 옳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하심

빈곤의 악순환: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축과 구매력도 낮고 투자 역시 낮아서  
생산력이 저하되고 이것이 또다시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하나님을 알면서 고의로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서 진화론 같은 헛된 생각을 함, 우상 숭배, 사람이  
짐승처럼 타락하게 됨,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림받는 생각 속에 내주심, 더 악한 일이 생김  
이런 구조 속에서 1년, 2년 지나면 몇 백 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못한다. 악순환이다.

1. 노아의 대홍수 이전, 창6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결합 그 결과(창6:5)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의 선포를 통해 회개 촉구(창6:3), 오직 8명만 구원받음

2. 바벨 탑 사건(창11), 니므롯(창10:8), 하나님을 대적함(창11:4)

3. 그 이후 세계 4대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도, 동일한 일 반복(창11:4), 우상숭배,  
아마존 밀립에 사는 사람들하고 동일하다. 그들이 쌓은 문명은 다 마귀 문명, 그 이후 그리스  
로마 제국 동일한 마귀 문명, 지금까지 동일하다.

4. 이들은 다 율법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변명하지 못한다(롬2:14-15)

이들도 다 그런 일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다 안다(롬1:32).

즉 그런 일은 안 좋다고 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의 반증  
그런데 같은 일을 한다(롬2:1).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롬2:3)

그리하면 반드시 진노의 날이 임해 심판한다(2:5).

5.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1.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2:7), 2. 정죄를 받는 자(2:8)

6. 여기에는 외모가 없다(2:9-11)

7.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  
이스라엘은 특별한가?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핵심: 나만 창조자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의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문제 우상 숭배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면 심판받는다. 정죄에 이른다.

8. 우리나라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율법 없이 살았다. 양심의 계시대로 심판을  
받는다.

9. 우리 조상들도 다 하나님이 계심을 창조 세계와 양심을 통해 알았다. 그럼에도 거의 전체가  
샤머니즘 우상숭배, 성경대로 따르면 지옥 정죄를 받았다.

###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약시대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구체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서 이방인 구원 사례를 찾아볼 것이다.

구원 순서: 창조 세계, 양심 혹은 기타 일반 계시, 절대자가 있음을 알게 되고 두려워한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그를 구원해 주신다.

1.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 이사야서 두루마리, 53장,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사마리아 시에서 빌립 사역(행8), 큰 부흥

주의 천사가 나타나 내시에게 가라고 함(26), 그가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함(35), 구원

2. 행10의 고넬료, 하나님을 두려워 함(행10:2), 하나님의 천사, 욥바의 베드로 초청(3-8),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 직접 나타남(9-17).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말씀 선포로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음

베드로의 말: 1. 34절: 외모 중시 No!, 2. 3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받아주신다

3. 노아의 홍수 이후 과거 4000년 동안 거의 모든 대륙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 죽었다.  
하나님의 정죄, 슬픈 일, 그럼에도 구약시대에 욥, 아브라함, 모세의 장인 이드로, 느부갓네살 등의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4. 요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특별계시를 주신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5.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믿나?

6. 구원:

a.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희생

b. 필수 조건: 믿음, c. 믿음의 대상: 하나님(히11, 요1:30), d. 계시의 진보, 경륜에 따라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창15:6; 롬, 갈).

7. 아이들과 정신박약아의 경우: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 구원해 주신다. 아이들은  
이미 회심한 상태이다(마18:3).

### 결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a. 사람이 일반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진리를 알려고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서 반드시 특별 계시를 주신다.

b. 알면서 고의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숭배, 그분 멸시, 이 경우 하나님의 진노  
노아 당시 8명만 구원, 조선시대, 세종대왕, 이순신 다 좋은 분들이지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음  
지금도 아마존, 아프리카 밀림, 대부분 반응하지 않음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계시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

c. 이교도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먼저 걱정해라.

나는 괜찮은가? 이교도들은 동성애는 안 한다. 간음 덜 한다. 욕심 덜 낸다.  
교육 많이 받고 잘 먹고 건강한 현대인이 더 문제, 더 큰 심판